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개통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 공동 개발
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신기술 적용
온라인 민원 발급창구 '정부24'로 일원화
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사용법 전달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시스템이 21일 개통됐다. 이날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시스템은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개발돼 기존에 사용 중인 나이스 시스템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신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학교시설·교육과정 운영계획이 자동화 지원되며, 자연어 처리 챗봇을 활용한 성적처리,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등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의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졌다. 또한 교육 관련 온라인 민원 발급창구를 '정부24'로 일원화 해 각종 증

명서 발급, 학교생활기록부, 채용 검정고시 평생교육(학원, 교습소)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은 학교 현장에서 지능형 나이스 시스템을 보다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들의 사전교육을 통해 시스템의 주요변경 사항 및 사용법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익 원장은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의 효율성과 질을 높이는 동시에 학부모, 학생, 교직원 모두가 새로운 시스템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가 지난 19일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교학부총장, 연구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을 비롯한 본부 보직자들로 구성된 청렴 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대학 청렴도 제고 본격 활동 돌입

전북대, 청렴문화 확산 협의회 구성... 4개 영역 13개 과제 수립

전북대학교 총장 양오봉(가운데)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협의회를 구성하고 대학 청렴도 제고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21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양오봉 총장과 교학부총장, 연구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을 비롯한 본부 보직자들로 구성된 청렴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에 전북대는 양오봉 총장 취임 이

후 부정·비위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윤리감사실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오고 있다. 이날 협의회 안건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실시 중인 종합청렴도평가에 대한 최근 3년간 평가 결과 분석 내용을 공유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맞춤형 실천 계획(4개 영역 13개 추진과제)을 수립했다.

더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마련했다. 이후 전북대는 청렴문화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본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물론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청렴도 제고와 맞춤형 실천 계획의 추진 상황 모니터링 등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부정부패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견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양오봉 총장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먼저 청렴해야 한다"며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해 촘촘하게 점검하고, 정부 시책이나 관련 법령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우리 대학을 가장 청렴한 대학으로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형 아동 돌봄체계 구축·지원단 기능 필요'

지역아동센터전북지원단, 전북 지역아동센터 운영성과·과제 토론회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전북지원단(단장 박신애)은 지난 20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운영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전북지원단은 지난 20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운영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북대 최원규 교수(사회복지학과)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원대 장영은 교수(사회복지학부)가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발제를 통해 장 교수는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원과 종사자들의 전문성 확보와 처우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북형 아동 돌봄체계 구축 및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 기능의 필요성도 밝혔다. 이어 김경 전북도 복지여성국 과장과 박경주 전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박용근 도의원, 이주연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채현주 전

북 14개 시군 지역아동센터연합회 등센터 20주년을 되돌아보며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지역아동센터가 아동 돌봄서비스 중심 기관으로 위상을 드높여 아동 모두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30일 우석대에서 한중일 시각장애인지능대회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는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전주캠퍼스 체육관에서 제12회 한·중·일 시각장애인 테니스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한국시각장애인테니스연맹이 주최하고, 우석대학교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한국·중국·일본 시각장애인지능대회 소속 선수와 지도자, 자원봉사자 등 3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개최식은 30일 오전 10시 리종일 한국시각장애인테니스연맹 회장과 유희태 원주군수, 오석용 진천캠퍼스 부총장을 비롯한 시각장애인 관련 인사가 참여한 장애인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키로 했다.

국내·외 수업혁신 동향 파악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제6회 콜로키움 개최
교수·학생 플랫폼 도입, 교육 주제별 역할 변화 토론회

전북교육정책연구소는 21일 전주평화회의관 세미나실에서 제6회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은 정책연구소가 매월 발간하는 교육동향 분석 보고서 등을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 동향 및 통계를 분석해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수업혁신의 국내·외 동향'과 교수·학습 플랫폼(LMS) 도입과 교육 주제별 역할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수업혁신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알아봤다. 또 '교수·학습 플랫폼(LMS) 도입과 교육 주제별 역할 변화'에서는 2025년 새롭게 도입될 AI 디지털교과서와 이를 구현할 공공 교수·학습 플랫폼(LMS) 개발을 앞두고 LMS가 무엇이고, 새로운 디지털 학습 생태계에서 교육 주제별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 중인 디지털교과서와 2년 후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 국가 단위로 적용하게 될 AI 튜터링 디지털교과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며, 이를 활용한 수업 혁신의 열쇠를 가진 교사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관련 보고서는 전북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정은성 기자

대회는 시력에 따라 B1·B2·B3로 나뉘며, 방울이 들어있는 테니스공의 소리로 위치를 파악해 상대 코트로 공을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시각장애인지능대회는 일본의 시각장애인인 다케이 미요시 씨가 소리가 나는 특수 공을 개발한 것을 계기로 시작된 현재 중국과 일본·영국·스페인 등 21개 국가에 보급돼 있다.

먼저 '수업혁신의 국내·외 동향'에서는 수업혁신의 요소와 동력 및 저해 요인과 국내 수업혁신의 전개과정과 수업방법의 특징을 살펴봤다. 국내에서 추진하는 수업혁신 정책과 사례를 분석하고 핀란드, 캐나다, 싱가포르

한국에서는 지난 2009년 사회일로급 테니스 애호가들과 시각장애교강이 주축이 돼 시각장애인지능대회가 발족했다. 대회 운영을 총괄하는 정진자(특수교육과) 교수는 "작년 대회부터 캐나다 재외동포가 함께 참여하는 등 이 대회에 관심을 보이는 국내 단체와 국가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한·중·일 시각장애인들이 장애라는 장벽에 부딪히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 'Life 2.0' 선정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지원하는 '2주기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Life 2.0)'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Life 2.0은 성인학습자의 대학 진입을 확대하고, 대학 내 평생교육 체제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평생교육 체제 구축형(유형1)에 이름을 올린 우석대는 사업비 10억여 원을 지원받아 2025년 5월까지 지

예비창업자 보유 아이디어, 사업화로 연결

전북대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 'INNO 아이템검증 솔루션 프로그램' 진행... 오늘까지

전북대학교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단장 조광수)은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사업화 의지가 있는 도내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INNO 아이템 검증 Solution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모집된 예비창업자 16명에는 INNO 아이템 검증 Solution 프로그램 교육과 더불어 최대 1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예비창업자가 보유한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One Stop 프로그램이다. 이는 이론교육과 맞춤형 멘토링, 발



포대회로 이어지는 아이템 기술 가치 평가로, 예비창업자를 검증해 시제품 제작과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화 자금이 지원된다. 또한 사업화에 성공한 예비창업자에게는 투자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한

전략적 투자유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현지 시장조사와 비즈니스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조광수 단장은 "오래 기간 다양한 창업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예비창업자들에게 아이디어 구체화는 여전히 어려운 작업"이라며 "그들 입장에서 어려움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적합한 아이템 개발과 고도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대는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북연구개발특구가 진행하는 '2023년 전북특구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사업'에 7년 연속 선정됐다. /정은성 기자



전주교육대학교는 21일 몽골국립교육대학교와 학술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전주교육대학교 제공)

국립군산대, 국경원 지부와 연구 보안 강화 업무협약 체결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이장호)는 연구 보안을 강화하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지원 사업 등 양 기관의 발전 및 상호 협력을 위해 국가정보원 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1일 오전에 열린 이번 협약식은 이장호 총장 최연성 부총장 이호근 교무처장 임기욱 학생처장, 장민석 산학협력처장, 운영원 정보전산원장 등 대학 주요 보직자와 국경원 지부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학생 교류·교환학생 추진 상호협력

전주교대, 몽골국립교대와 협약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21일 몽골국립교육대학교와 학술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학생 교류 및 교환학생 추진 △교직원 교류 △공동 교육 프로그램 기회 등을 위한 상호협력력을 약속했다. 몽골국립교육대학교 캠퍼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전주교대 박병춘 총장과 몽골국립교육대학교 바트바타르 총장을 비롯한 두 대학의 주요 관계자

들이 참석했다. 박병춘 총장은 "교육대학교 학생들에게 특성화 된 글로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며 "몽골국립교육대학교와 다양한 형태로 폭넓게 교류함으로써 인재 양성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몽골국립교육대학교는 몽골 유일 국립 교사양성 교육기관으로, 1951년 교사양성기관으로 설립됐다. 현재 8개 단과대학, 11개 연구센터, 41개 학과과정과 44개 대학원 과정에 1만4,000여명이 수학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